

6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2024.6.27.(목) 오후 2시 30분, 12층 대회의실

참석 위원 : 손영준 위원장, 안호림, 서신석, 강건기, 진한수,

박화선, 안성희, 이상헌, 이성우 위원 9인(허인순 위원 서면 제출)

회사 참석 인원 :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심의실장, 시청자센터 부장

■ 주요 내용

▲ 손영준 위원장

그럼, 성원이 되었습니다. 6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현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종합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줄어들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의정 갈등 문제이다. 거의 넉 달째 전국 의대 학생이 휴학 중이고 대부분의 종합병원 전공의는 병원을 떠났다. 종합병원에서는 수술이 연기되고 진료가 늦춰지거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TV는 사건 초기부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었다. 그러나 보도는 이 문제에 대한 정부(대통령실, 보건복지부, 교육부, 검찰, 경찰), 정치권(여야 정당, 국회), 의사 대표(대한의사협회, 전국외과대학교수협의회, Big5 대형병원 교수협의회) 간의 공방에 대한 현상(phenomenon) 전달에 치중해 왔다. 무엇이 문제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ROADMAP 같은 것은 다루지지 않았다. 이는 연합뉴스TV뿐 아니라 우리 언론 전체의 모습이기도 하다. 지난 4개월간 이번 사건의 가장 직접적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 학생들의 목소리는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박단의 SNS 내용을 간헐적으로 소개하는 정도이다. 다른 매체도 거의 동일하다. 24시간 뉴스채널인 연합뉴스TV가 우리 사회 중요 현안에 대해 보다 심층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의정 갈등이 벌써 100일째 달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맞춰서 자세히 다룰 수 있는 기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냥 현상만 나열하기보다는 대안을 찾으려고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워낙 이 문제가 양측의 의견이 심하게 엇갈려 언론 입장에서라도 책임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 또 대안을 어설프게 내놨다가 자칫하면 비판 받을 수도 있는 면도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상 전달에 그치고 있는 점이 있고요. 전공의와 의대생들 취재는 대상 개인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도 있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대표성 있는 단체 회장 외에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못 다루지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안호림 부위원장

- 6월 12일 의사 파업에 대한 보도들이 다른 방송사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의사 파업 관련해서 환자들 입장 관련 내용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의사와 정부의 강경한 대처 관점으로만 보도하지 말고 환자들 입장이나 목소리도 균등하게 보도하면 좋겠습니다.

- 6월 11일 6시15분 '뉴스잇' 프로그램에서 '알리 '비계 삼겹살' 논란...“망신 당하고 환불 요청”이라는 자막이 나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삼겹살 비계 논란” 이렇게 나오면 이해가 되는데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방송을 보면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소리 묵음으로 처리해서 보면 이해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 6월 5일 10:35 자막에 “유명 트로트 가수 개인정보 무단으로 빼내 집까지 찾아간 경찰” 이것을 일본식 표현인 '트로트'보다는 영어표현인 '트롯'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 6월 14일 10:50 뉴스포커스 출연 패널에서 김수민 시사평론가 발언 중 “대통령 해야 얘기를 들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는데 방송에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환자들 입장은 저희가 관련 리포트에 조금씩 다루긴 했습니다. 다만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장을 듣다 보면 오히려 시청자로 하여금 오도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환자들 지금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사실 내용이 어려워서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받고 있는 고통에 중심을 두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부를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의사들이 매도 당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환자들의 입장은 환자 단체 위주로 담고 있고요. 개별적인 환자의 목소리를 담는 것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양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막 처리를 할 때 공간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줄여서 표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요즘 보면 '알리익스프레스' 이렇게 다 얘기를 하기보다는 '알리' 이런식으로 줄여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알리'라고 표현을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처리한 것이거든요. 자막에다 긴 사명을 다 표기하기는 쉽지 않고 다만 기사 본문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라고 정확히 다 표기를 해서 시청자들이 잘못 알아듣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와 맞춤법에 맞는 표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트로트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로트라고 이제 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어 표기에서 사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정확한 문법에 맞춰서 표기 방식에 맞춰서 하다 보면 오히려 뭘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가끔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 표현의 자유 문제는 있지만 특히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나치게 과격한 표현을 쓰거나 과도한 선전 선동식의 주장이 들어가게 되면 시청자들이 혐오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지금 거론하신 이분이 자주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특정 패널이 부적절한 발언을 계속하거나 이로 인해서 시청자들의 항의가 자주 들어올 경우에는 정기적인 패널 조정 때 교체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손영준 위원장

허인순 위원님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의견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허인순 위원(서면 제출)

- 쿠팡 "모든 유통업체가 PB 우선 추천"...공정위에 재반박, 자체 브랜드, PB 상품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 원 과징금이 부과된 쿠팡이 반박 입장문을 냈

습니다. 쿠팡은 오늘(17일) 보도자료에서 "고물가 시대에 PB상품은 유통업체의 중요한 차별화 전략"이라며 "모든 유통업체는 각자의 PB 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 진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중 PB상품 단어가 8번 나왔는데 PB라는 약어의 뜻을 몰랐으면 이해가 어려웠을 기사인데 자체 브랜드, PB 상품이라는 해석이 있어 이해가 쉬웠습니다.

- [현장의재구성] 악명 높은 엘살바도르 수용소...100% 실제 상황, 갱단 영화를 보는 듯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두환 대통령 시절 삼청교육대가 있었는데, 여기 소개된 엘살바도르 수용소도 만만치 않은 규모의 수용시설과 수용 범죄자들의 두발과 수갑을 찬 채 상체를 반쯤 숙이고 뒤통수 이동하는 모습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으로 실제 범죄율은 현저히 줄었다고 하나 인권유린의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PB 상품'이란 명칭도 주변에서 많이 들어봤지만 혹시 뜻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 리포트에는 '자체 브랜드 상품'이라는 점을 명기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어려운 용어는 시청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인권 유린 측면이 있습니다만,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매년 여성 수백 명이 살해를 당하고 있고 그런 이유에서 이런 수용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상황에 따라서 좀 판단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들을 종합 검토해서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서신석 위원

- 연합뉴스TV의 뉴스오늘 2024년6월1일 사회면 보도, 인권위 "학생 휴대전화 수거 중단해야"...학교는 거부, 보도 내용" 인권위 "학생 휴대전화 수거 중단해야"...학교는 거부 국가인권위원회는 쉬는 시간에도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중학교에 이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오히려 학생들의 휴대전화 수거 규정을 강화해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보도 기사의 제목을 보면 "인권위 학생 휴대전화 수거 중단해야"라고 되어 있어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관심 있게 뉴스 보도를 시청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 하지만 보도 내용을 보면 인권위는 권고하고, 학교는 거부하고, 인권위는 유감 표명한 내용을 단순히 보도한 것으로 뉴스 끝이 난다. 본 뉴스 보도는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보도의 목적성이 불명확한 것 같다. 최소한 모 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한 사유를 인터뷰하여 보도하거나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든지, 인권위 권고 수용률이 몇 퍼센트가 된다 등과 함께 조사 내용 보도를 하였으면 시청자들에게 더 명확한 보도 취지가 전달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연합뉴스TV의 뉴스 보도가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사건 사고를 신속히 보도하여 시청자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내실 있는 취재와 팩트 있는 뉴스 보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 연합뉴스TV 홈페이지 개선 사항, 연합뉴스TV의 뉴스 카테고리를 보면 최신 일자별로 상단에 뉴스가 보여 진다. 하단까지 내려가면 '더보기' 기능이 있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어 기사 검색하는 데는 편리하다. 하지만 '더보기'를 몇 번 선택 하고 기사 한 편을 보고 나면, 다시 첫 페이지(최신 일자)기사로 복귀를 하게 된다. 다시 방금 봤던 기사 위치로 가려고 하면 다시 몇 번의 더 보기 기능을 실행한 후 그 위치에서 보고자 하는 기사를 검색 보아야 한다. 만일 6월 30일에 6월 1일자 기사를 보려고 최소 30번 이상을 더 보기를 실행

한 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몇 번을 반복하다 보면 더 이상 연합뉴스TV 보도 기사를 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 PC 버전에서 유저들의 편리성을 위해 '더보기' 기능 하단에 페이지 보기 기능을 추가하든지 아니면 방금 기사를 보았던 위치로 복귀하는 기능을 추가했으면 한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학생 휴대전화 수거 보도는 40초 안팎의 단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를 그렇게 심도 있게 상세히 저희가 처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리포트라 하면은 조금 더 기니까 그런 것들도 한두 문장씩 추가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단신이었던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PC 홈페이지의 카테고리 문제는 저희가 해당 기사를 본 다음에 창을 닫으면 기존의 나열된 페이지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다음 달이나 8월 중에 저희가 해당 작업을 해서 불편하신 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강건기 위원

- 6월 5일 뉴스센터와 6월 6일 뉴스10에서 가수 지드래곤이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의 특임교수가 됐다는 소식을 보도하였습니다. 두 번의 보도에서 기자는 추가 취재가 없이 똑같은 제목으로 단신 내용을 보도 하였습니다. 보도 내용은 지드래곤이 5일 대전 카이스트 본원에서 열린 '이노베이트 코리아 2024 행사에 참석해 특임교수 임명장을 받고 교수 생활을 시작했고, 카이스트가 최신 과학기술을 K-콘텐츠에 접목하는 취지에서 지드래곤을 특임교수로 초빙한 것이라고 전하고, 지드래곤은 올해 하반기 컴백을 목표로 새 앨범을 준비 중이라고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동 보도를 보면서 보도전문채널인 연합뉴스TV가 한 가수의 특임교수 임명을 두 번에 걸쳐 보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카이스트가 특임교수 임명식과 연관이 없는 이노베이트 코리아 2024에서 임명장을 수여하고 지드래곤의 특임교수 임명을 홍보하는 것을 연합뉴스TV가 똑같은 내용을 반복 보도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한국과학기술원의 영문 이름이 카이스트이므로 뉴스에서는 한글명을 사용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글명과 영문명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혼란을 줄 수 있어 가급적 자제하면 좋겠습니다. 추가 보도에서 이노베이트 코리아 2024 행사 내용을 취재하여 행사의 취지, 내용 등을 상세히 보도하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과학 쪽 보도에 좀 초점을 맞춰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가 이 기사는 그냥 유명 연예인이 카이스트의 특임교수 임명되었다는 특이성 때문에 단신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이런 사람이 카이스트 특임교수를 한다는 것까지 기사화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문화 쪽에서는 이러한 뉴스에 관심이 있는 시청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가 뉴스를 단신이든 리포트든 생산하면 아무리 적게 나가도 두번 이상 대부분 나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매뉴스마다 새로운 걸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기사가 필요하거든요. 저희 기자의 수 갖고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똑같은 사안이라도 내용을 추가하거나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역시 인력이 더 필요한 일입니다.

- 시청자에게 카이스트의 우리말 명칭은 병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한수 위원

노인 학대 가해자의 70%는 가족...증가 추세도 우려, 해당 보도는 앵커가 '노인 학대 예방의 날(6월15일)의 법정 기념일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정부가 노인 학대를 막기 위해 돌봄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요양보호사가 80대 노인에게 폭행을 가하는 CCTV 장면이 보도되고, "이러한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경제적, 방임 등 여러 유형의 노인학대가 매년 수만 건씩 발생한다"는 기자의 설명도 이어집니다. 위 CCTV 영상의 경우 학대의 심각성을 전달하면서도 요양보호사가 노인에게 폭행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기 직전에 정지하는 등, 시청자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의 노출을 최소화했다는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다만 보도 전 "정부가 돌봄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가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는 추세"라는 소개, 기자가 언급한 "정서적, 경제적, 방임 등 여러 유형의 노인 학대"는 구체적인 사례나 수치가 없어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해 같은 경우 2만 1936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발표한 장면이 나오지만, 이전 학대 건수는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없었고, 그래프나 표가 함께 더해졌다면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보도는 말미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회가 같이 부양 부담을 져야 하는데 그런 서비스를 모르기도 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노인학대의 원인을 제시합니다. 물론 정부가 노인 돌봄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각 가정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도움이 되지만, 노인 학대의 원인이 부양에 대한 부담감 때문만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도에서도 여러 유형의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므로, 세대교체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노인 빈곤의 증가, 노후 대비의 부족, 가족에 대한 인식변화 또는 개인화 등 조금 더 다양한 원인분석과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 입체적인 기사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 법정 기념일이라는 정보를 시청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점, 고령화 시대에 노인 학대 문제를 제기하여 국민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킨 점 등은 시의적절하였기에 매우 훌륭한 보도였다는 의견입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리포트를 만든 기자가 초년병 기자여서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수치 같은 것들은 CG를 활용해서 시청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대 문제 원인도 역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양 문제 때문만은 아니겠죠. 세대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너무 단순하게 규정했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리포트를 할 때 이런저런 점들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 얘기하겠습니다.

▲ 박화선 위원

다다를 인터뷰 : 사라진 호두과자 날아간 모발, 사장이다. 6월 18일, 일상 생활에서 무수히 만나고 지나치는 우리네 옆에서 가게 한켠을 묵묵히 지켜가는 젊은 사장님의 인터뷰는 대단한 사연도 큰 반전도 없었지만 어딘가에서 하루하루 발생하는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 점점 성장해가는 모습에서 우리 가족 중 한 명의 모습과 투영되어 잔잔한 울림이 있었다. 호두과

자 장사를 하면서 겪은 황당하고 부당한 일들에 때론 실망하고 좌절하며 큰 스트레스로 원형탈모까지 왔지만 화면에 담긴 인터뷰어의 건강한 웃음 띤 얼굴은 기성세대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젊은 MZ세대가 이제 진정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자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흐뭇했다. 한편 인터뷰어의 엄마와의 인터뷰도 화면에 동시에 오버랩시키며 모녀간에 직접 말하기 쑥스러운 걱정과 당부의 얘기들은 시골의 계신 부모님과의 추억을 새삼 떠올릴수 있는 먹먹한 장면이었다. 개인적으로 다다를 인터뷰를 유튜브에서도 가끔 찾아볼 정도로 무자극, 무반전, 무막장, 무정보의 내용이지만 보고 나면 자연스레 잔잔한 미소가 지어지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나름대로의 대단한 역사가 있다. '다다를 인터뷰'는 화제성 있는 인물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 인터뷰어도 시청자도 잠시라도 흐뭇하게 웃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더욱 거듭났으면 좋겠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앞으로도 저희가 '다다를 인터뷰'에서는 해당 제작물의 취지에 맞게 말씀하신 대로 덜 자극적이지만 훈훈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성희 위원

- [뉴스쑥]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기소...사고 발생 40일 만 | 음주운전 혐의는 빠져...소속사 대표 등 관계자 3명도 함께 재판행, '뉴스쑥'이라는 코너에서 하나의 이슈에 대해 4개의 관련 보도를 묶어 놓아 한번에 상세한 내용을 살필 수 있어 시청자의 이해를 돕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단 연합뉴스TV만의 문제는 아니고 모방 범죄 등 다른 사례 보도에서도 반복되는 것이지만, 음주운전 혐의가 빠졌다는 점에 지나치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 보도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과학수사로 아직까지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까지는 밝히진 못한다는 점'을 확인 '사법 방해로 음주운전 처벌 어려워진 대표 사례'라고까지 언급해주고 있어 음주운전 회피 '꼼수' 횡행의 문제점에 대해 다루고 있으면서도 그 '꼼수'가 효과를 본 사례라는 것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 [이슈 오늘]에서는 '처벌 수위가 어떻게 예상되는지'라는 앵커의 질문에 대한 패널(변호사)의 '변호사와 전략적으로 상의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보도전문채널에서 형량을 줄이고 회피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사건속으로]에서는 전 경무관이 출연해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3%로 낮추면서 발생한 2차 부작용(구호조치하지 않고 도망치는 사례)와 미국의 경우 음주 단속 기준(0.08%)을 낮추지 않고 처벌 강화, '음주운전 억제책 아닌 방지책으로 단속', 음주 전력 있을 시 음주단속기 설치 의무화하고 있는 사례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어 긍정적이었습니다. 다만, 자료화면이 '(음주)단속'을 연상시키는 화면 외 차량 전시.판매점 등 의미 없는 화면으로 반복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저희가 범죄를 기사화하다 보면 항상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범죄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그것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대목일 경우에 범죄 수법을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런

데 또 그러다 보면 제도 보완이 되기 전까지는 모방 범죄를 부추기는 그런 부작용도 있어서 그런 양쪽 부분들을 저희가 다 고려해서 기사의 수위, 내용의 수위를 정해야 하는데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완전히 안 다를 수는 없다고 보고요. 혹시나 모방 범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줄어들도록 조심해서 개선하겠습니다.

- 대담 패널이 '변호사와 전략적으로 상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부분은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한 게 시청자 입장에서는 불편해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패널에게 앞으로는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자료화면 편집이 다소 성의가 부족했던 것 같네요. 그래픽 같은 것도 넣고 좀 다양화시켰으면 괜찮았을 것 같고 차량 전시나 판매점은 전혀 관련도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급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착각한 것인지 알아보고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 이상헌 위원

- 최근 신설된 코너인 것 같은데요. 경제 뉴스를 다루는 '경제쑥쑥'이라는 코너를 좀 살펴봤습니다. 코너를 진행하는 앵커가 경제부 기자가 재미난 경제뉴스를 전달하는 시간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실제 흥미로운 주제를 굉장히 쉽게 풀이해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통상적인 경제 뉴스 대부분이 어렵고, 무거운 내용들인 데 비해 실생활과 밀접한 흥미로운 주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고, 관련한 팁이나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어렵다는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주는 대표적인 코너로 '경제읽기'가 있었는데요, 이 코너가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경제 뉴스의 흥미를 일으키거나 접근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코너로 역할을 해 나갔으면 합니다.

- 최근 뉴스에서는 집단 휴진 이슈가 빠지지 않는 이슈입니다. 집단휴진과 관련해서 일정이나 참여 수준, 정부 대응 등에 대해 보도하고 있긴 하지만,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은 커지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등 필요한 정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살펴보니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문 여는 병의원 확인 방법을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당분간 휴진 이슈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 뉴스 보도 시에 자막 등을 활용해서 정보를 제공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경제쑥쑥'은 이번에 저희가 6월 초에 개편을 하면서 마련한 코너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마련한 이유는 올해 들어서 저희 시청률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YTN에 비해서는 계속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시청률 자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뉴스에 대한 수요가 조금 줄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정치 뉴스, 정치 대담에 대한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 때에는 정치 쪽 뉴스를 줄이고 경제라든가 문화라든가 기존에 우리가 조금 적게 해왔던 뉴스를 많이 다루려고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련된 코너이고 기자들이 출연하는 게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전문가들이 패널로 출연하시면 아주 상세한 전문 지식을 잘 말씀해 주시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기자들은 일반 시청자가 알기 쉽게 소화해서 이야기하는 능력은 더 있거든요. 또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의 훈련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적고 출연을 자주 하다 보면 방송에 대한 텔런트가 길러지기 때문에 나중에 앵커를 육성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잘 못했던 것은 기자 수가 적어서였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기자 수도 예전에 비해 좀 늘어났고요. 또 기자들도 출연

하는데 대해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기자들이 경제 전문가처럼 경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실생활과 관련된 가벼운 주제들 위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서 저희의 대표적인 코너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리포트 등 일반 뉴스에는 의정 갈등과 정부 대응 등에만 집중하고 환자들의 병원 이용 안내는 다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향후 집단휴진 시 병원 이용법과 관련 이용 정보 등을 넣어서 보도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이성우 위원

- [센터웨더] 여름철 식중독 주의..."손 씻기만 잘해도 50% 예방"(6.11.),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빨리 오고, 훨씬 더울 것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마침 위 제목의 뉴스가 보도됐던 날은 30도가 넘는 지역이 곳곳에 생겨 그야말로 불볕더위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대에 접한 이 뉴스를 보면서 내용이 알차고, 시청자가 이해하기 쉽게 잘 구성이 됐다고 느꼈습니다. 여름철 음식물 올바르게 보관하는 방법과 식중독 예방법을 그래프와 이미지와 같은 시각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보니 단순히 텍스트로 구성된 뉴스와 비교했을 때 정보 전달이 명확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 뉴스를 보셨다면, 내용을 이해하기 매우 수월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기상청, 국립환경과학원과 국민건강보험이 제공하는 '식중독 예측지도'를 소개하면서 여기를 통해 관심과 주의, 경고와 위험 등 4단계로 구분되는 식중독 발병 가능성, 지역별 식중독 발생 위험 정보, 식중독을 예방하는 행동 요령, 그리고 과거 식중독 발생 관련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한 점에서 주목이 됐는데, 이는 개인적으로 식중독 예측 지도가 있는 줄 몰랐다 보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앵커와 캐스터의 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 캐스터가 무대를 옮겨 기상예보를 했는데, 당일 날씨와 전날 날씨를 비교하며 전체적으로 차분히 설명하면서 아울러 식중독 관련 주의와 당부사항을 전하는 캐스터의 진행 모습에 이번 뉴스는 무엇하나 빠질 것 하나 없이 유익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알찬 내용의 뉴스를 꾸준히 전달하는 연합뉴스TV의 보도를 바라겠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센터웨더' 역시 저희가 6월 개편 이후에 신설한 코너입니다. 요즘, 날씨 뉴스 수요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일상하고 관련이 많이 돼 있고 기상 이변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 없던 현상들도 많이 나타나서 저희가 기상 기자, 기상캐스터와 몇 가지 코너를 만들었는데 다들 반응이 좋습니다. 계속 미진한 것들 보완해서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날씨 코너 만들겠습니다.

▲ 손영준 위원장

다른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난 달에 제가 질의에서 우리 시청자위원회 작년 1월부터 활동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알고 싶다고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잊지 않고 회사 측에서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및 회의 준비해주신 연합뉴스TV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6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끝)